###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비중 확대

# 1분기 車 수출단가 역대최고

올해 1분기 한국 자동차 수출단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포츠유틸 리티(SUV), 고급차 등 가격대가 높은 모델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 면 1분기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G M), 쌍용차, 르노삼성 등 국내 5개 완 성차 업체의 평균 수출단가는 1만5천 748달러로 1년 전보다 1.9% 높아졌

수출단가는 수출금액 91억6천만달 러를 수출물량 58만1천436대로 나눈 것이다. 물량은 1.4% 늘어나는 데 그쳤 지만 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금액이 3.3% 증가했다.

수출단가는 작년 1분기 1만5천461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3분기 1 만5천58달러로 내려갔다가 작년 4분 기 1만5천642달러로 반등했고 올해 1 분기에 또 올랐다.

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원 화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수출단 가는 1천773만원에 달한다. 1년 전 1천

●완성차 5개사 1분기 수출실적

(단가 단위: 백만 달러)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계
2018년 1분기	수출대수	217,241	203,829	100,339	6,676	45,345	573,430
	평균단가	16.285	15.242	13.038	18.235	17.452	15.461
2019년 1분기	수출대수	227,289	227,527	97,770	6,277	22,573	581,436
	평균단가	17.204	15.471	12.656	18.359	16.553	15.748
증감(%)	수출대수	4.6	11.6	-2.6	-6.0	-50.2	1.4
	평균단가	5.6	1.5	-2.9	0.7	-5.2	1.9

### 완성차 5개사 대당 1천773만원…전년比 1.9% 상승 업체별 수출단가 현대차 작년 동기대비 5.6% ↑ 1위

658만원에 비해 6.9% 높아졌다.

4월에도 이런 추이가 이어졌을 것으 로 추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4월 전체 자동차 수출 동향을 보면 물량보다 금 액 증가율이 더 높다. 물량은 3.0% 늘 었는데 수출액은 5.8% 증가했다.

업체별 수출단가는 현대차가 1만7 천204달러로 5.6%, 기아차는 1만5천47 1달러로 1.5% 작년 동기대비 상승했 다. 쌍용차도 1만8천359달러로 0.7%

단, GM과 르노삼성은 1만2천656달 러와 1만6천553달러로 각각 2.9%, 5.2 **PALISADE** 

SUV 등 가격대가 높은 모델의 수출이 늘면서 한국 자동차 수출단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

% 하락했다.

완성차 업체 수출단가 상승은 SUV 등 비중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1분기 모델별 수출 순위 1-3위는 모

두 SUV가 차지했다. 한국GM의 소형 SUV인 쉐보레 트 랙스가 6만2천288대로 1위이고 현대

투싼(5만9천93대)과 코나(5만5천189 대)가 뒤를 이었다.

상위권 순위는 작년 1분기와 같지만 10위권으로 보면 SUV 차종이 4개에 서 6개로 늘었다.

완성차 업체들은 SUV 등 고부가가 치 차량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다.

승용차 가운데 SUV를 포함한 다목 적 차량 수출은 1분기에 35만5천528대, 62억1천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물 량은 4.3%, 금액은 8.0% 증가했다.

전체 승용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은 물량 63.7%, 금액 70.1%로, 1년 전 에 비해 각각 1.9%포인트, 3.3%포인트

다목적 차량은 수출단가가 1만7천4 68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3.6% 상승 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승용차 수 출단가(1만5천737달러) 상승률(1.8 %)의 두배다. /임후성 기자

## 현대차 i30 유럽서 잘 나가네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유럽 전략 형 모델인 i30가 유럽 진출 13년 만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i30를 비롯한 i10, i20, i40 등 'i시리즈' 전체 누 적 판매도 연중 300만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i30는 유럽연합(EU) 28개 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등 32개국에 서 올해 1분기 1만5천557대가 판매돼 2007년 6월 유럽 서 첫선을 보인 이후 누적 판매 대수는 100만6천858대 로 집계됐다.

i30는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유럽 공략을 위해 선 보인 전략 차종으로 현대차 체코공장 등지에서 생 산하며 폴크스바겐의 골프와 경쟁하기 위해 개발 됐다.

> 유럽시장에서 1세대 모델은 2007년부터 20 12년까지 모두 42만318대가 팔렸고, 2세대 모델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3만1 천612대가 판매됐다.

> > 2016년 출시한 3세대 모 델은 올해 1분기까지 누적 판매가 다.

진출 13년 만에 누적판매 100만대 돌파 'i시리즈' 전체도 연중 300만대 넘길 듯



15만4천928대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2017년부터는 모터스포츠의 영향력이 크 고 고성능 차량 수요를 반영해 현대차의 고성능 'N 브랜드' 첫 번째 모델로 i30 N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

i30 N은 출시 첫해인 2017년 1천154대, 지난해 6천9

23대에 이어 올해는 1분기에만 3천36 대가 팔리는 등 모두 1만1천113대를 기록

i30는 현대차가 유럽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 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특히 2세대 모델을 선보인 201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폭스바겐의 마르틴 빈테르코른 회장이 차량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사 임원진을 질책하는 듯 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벤테르코른 회장은 i30 운전석에 앉아 스티어링휠 위치를 조정한 뒤 고정하는 장치를 여러 번 조작해보 고서는 별다른 소음이 나지 않자 "우리도 못 하고 B MW도 못 하는 것을 어떻게 현대가 할 수 있느냐" 며 동행한 임원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또한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모델은 독일의 자동차 매체 아우토빌트가 준중형 해치백 1위로 평가했고 i30 N은 지난해 '2018 아우토빌트 올해의 스포츠카'에 선정된 바 있다.

[취득 자격증]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임후성기자

### 기아차 '친환경차 나눔 캠페인' 실시

#### 1대 판매시 5천원씩 적립…강원 산불 피해복구 지원

기아자동차㈜는 강원 고성 산불 이재 민들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친환경 차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

'친환경차 나눔 캠페인'은 기아차가 친환경차(EV, HEV, PHEV, LPI 차 량)를 1대 판매할 때마다 5천원씩 적립 해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기금을 마련하 는 고객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기아차는 적립된 기금을 생필품, 가전 제품, 생계비, 주택보수비 등 다양한 형 태로 피해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차는 이번 캠페인에 대한 고객 관심을 유도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 책으로 일반 판매가 허용된 LPG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

우선 기아차는 다음달 말까지 K5, K7 LPI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천명에게 총 20만원 상당의 혜



택을 제공하는 'LPI 더블 지원 이벤트' 를 실시한다.

'LPI 더블 지원 이벤트'는 K5, K7 LP I 모델 구매시 10만원 할인 혜택과 함께 SK LPG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시 1회 최대 3천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또한 기아차는 노후 경유 1톤 화물차 를 봉고 LPI 트럭으로 교체하는 고객들 에게 환경부 보조금 이외에 50만원의 추 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총 20만원 상 당의 SK가스, E1 충전카드도 제공할 예 정이다. /임후성기자

- 자동차정비기능사 (6/3 1H1)

-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위치:계림초교 사거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062-944-5775 팩스: 062-944-5995



(6/3 7H75)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 에너지기능사 -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광주공동훈련센터 )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

- 냉동공조기계기능사

- 가스기능사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